

보험업계, 주52시간 근무제로 PC오프제·유연근무제 확대

내달부터 금융권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업종으로 지정돼 1년 간 유예기간을 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PC온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근무 시간 단축과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PC온오프제는 사내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제도로 오후 6시 또는 7시에 PC가 자동으로 꺼져 더는 일하지 못한다. PC가 꺼지기 10~30분 전 모니터 화면에 공지가 떠 근무시간 종료를 알리고 추가 근무를 하려면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유연근무제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기본으로 한 시간 먼저 출근하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충족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2006년부터 PC온오프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주52시간제를 해오고 있었다.

현대해상도 이미 PC온오프제를 도입해 주 1~2회 실시하다가 2017년 9월부터 주 5회로 확대했다. 삼성화재는 PC 온오프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만 PC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해 7월 PC온오프제를 조

금융업 특례제외업종 지정 1년 유예
회사·직원 근무시간 단축 활용 준비

PC 꺼지기 10~30분전 모니터 화면에
공지 떠 근무시간 종료 공지 퇴근 재촉

유연근무제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하루 8시간 근무 충족... 자유롭게 출퇴근



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간 아침 회의시간을 종전 오전 8시 40분에서 오전 9시로 늦추기도 했다.

농협생명은 지난 2월부터 PC온오프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부서 회식이나 모임을 금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PC온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또한 일부 부서에

한해 시범 적용 중으로 내달부터 전 부서에 확대 적용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9월부터 유연근무제와 평일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 실천의 날’로 지정해 모든 임직원

들이 오후 6시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사실상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

코리안리재보험 KOREANRE

코리안리,
국내 유일의 세계로

국내 유일 세계 10대 금융회사, 국내자본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
런던 로이즈 마켓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보험사
코리안리가 이제 '국내 유일'을 넘어 '세계 유일'을 향합니다.

KOREANRE

2011. 2. A.M Best A Stable 획득
2012. 9. 세계 10위 재보험사 (A.M. Best)
2014. 10. S&P A Stable 획득
2015. 4.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 설립
2017. 7.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점 설립
2018. 1. 두바이 지점 설립

WE SERVE TO PROTECT YOUR FUTURE
www.koreanre.co.kr



메트라이프, 업계 유일 '달러저축보험' 판매 확대

‘무배당 원화내고...’ KB국민서 판매

메트라이프생명이 외화통장이나 달러가 없어도 원화로 가입이 가능한 달러저축보험인 ‘무배당 원화내고 달러모아 저축보험’을 KB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원화환산서비스를 도입해 외화통장이나 번거로운 환전 절차 없이 원화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자산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고의 약 64%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기축통화인 달러를 원화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원화환산 시 고객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수수료(1달러당 2원)를 최소화했다.

2019년 6월 기준 공시이율은 연복리 3.2%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10년 이내 2.0%, 10년 초과 시 1.25%다.

일반적인 저축성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유니버설 기능을 통해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을, 목적자금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금 활용성이 유연하다. 또 원화로 보험료 납입 시 환율에 따른 월 보험료의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매월 고정된 원화로 보험금을 납입하는 ‘원화고정 납입옵션’을 제공한다. 차액은 자동으로 추가 납입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과 함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월납과 일시납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한도는 최소 150달러부터 2만달러까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보라 기자 lbr00@

주재중 하나생명 사장, 손님케어센터 찾아 ‘일일 상담사’ 체험

작년 이어 두번째... 고객과 직접소통

주재중 하나생명 사장이 17일 대전에 위치한 손님케어센터를 찾아 ‘일일 상담사’ 체험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일상담사 체험을 가진 주 사장은 이번에도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자 손님케어센터로 다시 한번 방문했다.

이날 주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상담사 자리에 앉아 민원을 직접 듣고 응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이 끝난 이후에는 손님케어센터 상담사들과 현장 업무에 대한 애환과 고충을 공유하며 격려하고, 상담사들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기를 선물했다.

주 사장은 “고객과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계시는 상담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과 직원 모두 행복한 회사가 되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중 하나생명 사장이 17일 대전에 위치한 손님케어센터에서 상담사들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하나생명

한편 대전에 위치한 하나생명 손님케어센터는 상담사 방카제널 전문상담사 도입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친절응대교육 강화 등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9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3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